

박여범의 소소한 일상

쉬어가는 여유

사 람도 기세도 무리하면 말이 나게 마련이다. 그래서 휴식이 필요하다. 짧지만 짧지 않은 인생이라는 여행에서 잠시 쉬어가는 여유를 부려야 하지 않을까? 쉬어 줘야 다시 힘을 축적해서 새로운 발걸음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될을 그리는 사람은 없다. 적절한 휴식과 긴장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시너지는 정말 크다. 짧은 청년의 삶에서 그 어느 시기보다 휴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시회는 휴식을 허락하지 않는다. 게으르느냐가, 일을 잘 못하느냐가, 뒤 지레 등 다양한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개인 어른이면 행사처럼 이겨내



박 여 범

음북중학교·시인 문학박사·문학평론가

야 하는 것이 있다.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길목에는 여기저기 '더위'와의 힘판 전쟁이 불가피하다. 그래도 작년까지는 견딜 만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지나고 나니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까 생각했다. 더위도 정말 너무 덥다. 더울 땀만 아니라 습기도 높아 본래감이 하늘을 찌른다. 네가 쉬어야 내가 쉬고 내가 쉬어야 네가 쉬다

무엇이 그리 급하고 소중한가 많은 공기와 하늘 한 번 바라보고 너와 내가 쉬어야 하지 않겠는가 -박여범, '뭉' 일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너무 조이다 보면 말이 나게 마련이다. 기계라도 예외는 아니다 부하가 격리되기 쉽기 때문이다. 뜨거운 날씨에 기계라고 견딜 수 있겠는가? 인정부분 일을 다치면, 다시 손을 통한 강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어렵겠지만, 자기 삶을 돌아다볼 수 있는 여유를 자신에게 선물하는 것이 이 뜨거운 여름을 비껴가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기고문

코로나19, 무수히 극복된 감염병 중 하나일 뿐

작년부터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과거에 비해 의학과 영양, 위생 측면에서 월등한 현대사회지만, 코로나19라는 신종 감염병 앞에 책을 못추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또한 수도권에 중심이던 지난 확산기와 달리 전국적으로 연일 1,5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며 4차 대유행기를 겪고 있다. 2019년 12월 발병 초기 '우한폐렴'으로도 불린 코로나19가 비교적 짧은 기간 내 세계적인 팬데믹이 되기까지는 인구의 증가에 따른 도시화와 교통 발달, 무분별한 자연환경의 파괴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는 감염병의 위협에 노출되며 살아왔다. 14세기 중세 유럽을 휩쓴 흑사병(페스트)으로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인 2천만명이 사망하였고, 1918년 발생한 스페인 독감은 약 4천만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조선왕조실록은 조선 정조(1798년) 때 발생한 천연두로 한 달 만에 10만명이 숨졌다고 기록하고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라리아나 불거리를 포함해 마치 잊혀진 듯한 페스트나 천연두 등은 근대까지 우리의 삶을 위협해온 감염병으로 여전히 약한 고리를 찾아 주변을 맴돌고 있다. BC 12세기 이집트 국왕 람세스 5세가 걸려서 사망할 만큼 역사가 오래된 천연두는 최근까지 인류를 공포에 떨

게 했지만, 1798년 영국의 의사 에드워드 제너가 창시한 종두법 보급 이후 쇠퇴하였다. 감염병 역사상 가장 많은 사망자를 기록한 말라리아는 높은 열과 실사, 두통을 동반하며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1820년 프랑스 화학자 피에르 조셉 펠레티에가 열병 치료약인 '퀴닌'을 발명하면서 극복되었다. 인도의 풍토병으로 출발한 콜레라로 19세기 동안 천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원인이 되는 오염된 물에 염소를 풀어 인체에 유해한 균을 죽이는 정수처리 시스템의 정비로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토록 인류의 생존을 위협해 온 수많은 감염병은 다수의 희생자를 동반한 집단면역의 형성과 치료제 등을 통해 극복해 왔고, 그중 몇몇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백신 예방접종이라는 테두리 속에 잠재하며 억제되고 있다. 어린이는 생후 1주 이내 B형 간염 예방접종을 시작으로 1개월 내 결핵 예방 BCG 등 12세 이전까지 30여 가지의 접종을, 성인이 되어서도 매년 실시하는 인플루엔자 접종을 비롯한 많은 예방접종을 하게 된다. 백신 예방접종은 감염을 미리 막기 위해 예방약을 몸에 넣어 주는 것으로 수많은 효과로 검증된 확실한 감염병 차단 수단이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감염병을 대처하는 가장 전통적이며 가장 확실한 예방책으로, 과거로부터 감염병이



이 길 원

순천소방서장

발생하면 일상의 많은 활동을 자제하며 사람 간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려 했다. 정부에서는 지난 유행기와 다른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나 하나쯤으로 치부하는 개인의 일탈은 전체 사회를 위협에 빠뜨리게 한다. 전체의 이익을 위해 방역 수칙 위반자에 대한 단호한 책임이 요구된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바이

러스'를 성공적으로 통제해 온 나라이다.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여건 중에도 다행스러운 것은 초기 노약자를 중심으로 높았던 사망률이 점점이 확대되며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전 국토의 1일 생활권이 아닌 전 세계가 1일 생활권이 된 현실에서 한 나라, 한 지역만의 대응만으로는 방역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일부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백신 이기주의는 감염병 극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감염병 통제에 가장 효과적인 백신 예방접종과 함께 가장 오래되고 확실한 예방책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19도 극복할 수 있다.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감염병을 극복해 온 것처럼 코로나19 또한 극복되었던 다른 하나의 감염병으로 남을 것이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송주빌딩 4층

사설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의 의미

남북 통신 연락선이 갑자기 복원됐다. 과연 복원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남북 관계와 북미대화는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락선 너와 내가 쉬어야 하지 않겠는가 -박여범, '뭉' 일부- 과거에도 남북 갈등 상황 때마다 북한이 가장 먼저 한 것은 통신선 단절 혹은 복원이었다. 작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앞서 통신선부터 끊었다. 반대로 2016년 개성공단 운영 중단 때 단절했다가 2018년 1월 전격 복구했다. 북한은 끊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했다. 이번에도 통신선을 다시 연결했다는 건 어떤 의미든 남북관계가 바뀔 거란 신호로 볼 수 있다.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을 북한도 인식한 것 아니냐는 게 가장 긍정적인 해석이다. 문재인 정부가 바이든 정부와 긴밀히 협력을 하고 있다는 걸 파악했을 거란 분석도 나온다. 코로나로 국경을 봉쇄한 가운데 최근엔 가뭄 피해까지 심각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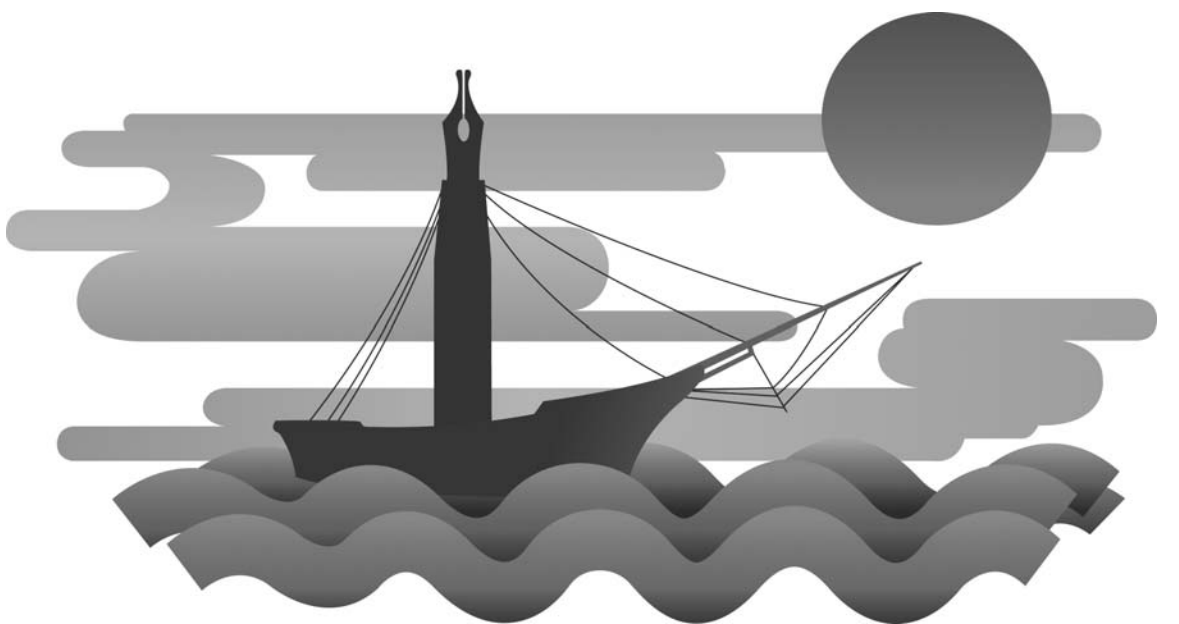
서 식량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다음 달에는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돼 있다. 원래 하반기 훈련은 병력과 장비 이동 없이 지휘소 훈련만 하기 때문에 북한이 크게 반발하지는 않을 거라는 분석이 많다. 그러나 설부른 낙관은 금물이다. 화상 이산가족 상봉이나 식량, 백신 협력 같은 여러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북한으로서 미국과의 협상이 중요한 것이다. 북미 간 직접 대화에 나서지 못하는 북한이 미국에 보내는 우회적 신호라는 더 적극적인 해석도 있다. 문 대통령이 친서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구체적인 대북 유화 조치를 전달했고 이에 대한 반응이란 분석도 나온다. 미국은 여전히 조건 없는 대화 복귀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이런 태도를 보면 앞으로 북미 대화가 쉽지 않은 양을 전망이다.

도내 공사장 사고와 중대재해처벌법

지난 6월 단 열흘 사이에 전북의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5명이 목숨을 잃었다. 대부분 하도급업체 소속의 노동자였다. 노동계는 원도급업체 등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만 허점이 많으며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지난달 28일, 전주의 한 도로 아래 묻힌 상수도관 안에서 용접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휩쓸려 20분 만에 구조됐지만 끝내 숨졌다. 이 사고가 나기 바로 앞서 전주 건설 현장에서는 노동자가 20미터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타워크레인과 건물을 연결하는 지지대를 철거하다가 생명을 잃어간 것이다. 익산에서는 공장 지붕을 고치던 노동자가 7m 아래로 떨어지면서 숨졌고, 정읍의 건설 현장에서 용접하던 노동자 2명은 심한 화상으로 목숨을 잃었다. 노동자가 일하다가 숨지거나 해를 입고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 9일에는 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까지 이미 발표했다. 하지만 법이 이미 시행됐다 해도 이들 사고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힘들었을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자가 50명 미만이거나, 건설 사업장 공사 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뒤부터 법이 적용된다. 이번에 발생한 4건의 사고 가운데 공사 금액이 50억 원을 넘는 1건을 빼고는 모두 유예 대상에 해당한다. 당초 처벌 대상에 포함됐던 발주처도 법안 심의 과정에서 모두 제외됐다. 법에 빠져나갈 소지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로 빠져나가기 쉽상이다. 원래 법의 취지대로 예방을 하려는 노력이 허사가 되고 만다. 노동 현장의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일이 최우선 과제다. 책임을 져야 하는 이들이 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서둘러 법을 보완해야 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